

‘무제한 요금제’ 광고피해 보상방안 마련

이통사 요금제, 사용 한도 둘 때 ‘무제한’ 표현 금지 LTE 데이터 쿠폰이나 과금액 환불 등 소비자에 보상

이동통신3사의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LTE 데이터 쿠폰이나 과금액 환불 등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이통사가 요금제가 데이터·음성·문자 사용에 한도나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 ‘무제한’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합부로 쓸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사와 협의를 거쳐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40일 간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LTE 데이터 쿠폰 제공 ▲음성·문자 사용 한도 초과로 인한 과금액 환불 ▲부가·영상 통화시간 추가 제공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마련했다.

◇ ‘데이터 무제한’ 관련, 736만명에 LTE 데이터 쿠폰 제공

공정위는 ‘데이터 무제한’ 광고와 관련, 각 요금제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736만 명)에 대해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한 보상대상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다른 보상대상 요금제로 변경한 경우 중복보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 기간 중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다. 제공되는 데이터 쿠폰 가치는 약 13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15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고, 등록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SK와 KT의 ‘문자·음성 무제한’ 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향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과금된 금액 전부를 환불하기로 했다.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요금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해지(또는 변경)한 가입자에게는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한다. 통신사 해지나 변경 후 6개월이 넘는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스팸 등 상업적 또는 불법적 목적의 사용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생계형 다량이용자는 환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택배업, 플랫폼업, 대리운전업, 신용카드 배달업, 퀵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고객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음성 무제한’ 관련, 2508만명 대상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 제공

공정위는 이통사의 ‘음성 무제한’ 광고와 관련, 해당 기간 중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2508만명)를 대상으로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도록 했다.

제공되는 통화량은 광고기간 가입자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30분이다. 소비자는 영상·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쿠폰과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꾼 경우에는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소비자들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변경 전 통신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인공지능의 미래는... 로버트 H. 라이더(Robert H. Ryder) IBM 왓슨 CTO(최고기술경영자)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 IBM 본사 IOC 클라이언트 센터에서 ‘인공지능의 미래, 왓슨’ 강연을 하고 있다.

현 통신사에서 데이터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 변경 후 6개월이 넘는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통3사의 요금제 정보 제공도 강화하도록 했다.

◇ ‘무제한 요금’ 광고 표시 내용 개선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통3사의 ‘무제한 요금’ 광고 표시 내용을 개선하도록 했다. 요금제에 데이터, 음성, 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라는 표시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또 데이터나 음성의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도 ‘기본 LTE 제공량 소진시 데이터 전송 속도 제한’, ‘집전화·무선전화 무제한’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이통3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요금제의 사용 조건 및 제한 사항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팝업페이지(7일 간)와 배너(1개월 간)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통3사는 공정위가 데이터·음성·문자 사용에 한도나 제한을 두고 있는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4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통3사에 동의의결서를 보낸 뒤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시정 방안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인진수 기자

ISA 판매 셋째 날 8만명 가입... 계속 감소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셋째 날(16일) 약 8만명이 추가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입자수가 첫 날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소비자 반응은 점차 약화되는 추세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 ISA 가입자는 8만1005명, 가입금액은 528억원이다.

이로써 ISA 출시 후 3일 동안 누적 가입자 수와 가입금액은 각각 51만423명, 2159억원으로 늘어났다.

ISA로의 소비자 유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출시 첫 날 32만2900명이었던 가입자는 둘째 날 11만1428명, 셋째 날 10만명 이하로 줄었다.

같은기간 가입금액도 1095억원에서 535억5000만원 528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업권별로 보면 은행을 통한 가입자가 49만324명(95%)으로 가장 많다.

증권은 2만4986명(5%), 보험은 113명이다. 가입금액도 은행 1427억원(66%), 증권 731억원(34%), 보험 1억원 순으로 몰렸다.

현재 ISA 계좌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42만원이다. 은행 평균은 29만원, 증권사는 239만원이다.

고객이 직접 금융상품을 고르는 신탁형에는 총 2121억원이 담겼고 금융사가 대신 자금을 운용해주는 일임형에는 38억원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일임형 상품은 증권사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은행은 일임형 등록 후 내달 초부터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인진수 기자



LG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G5’ 혁신성 홍보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G5’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나선다. 예약판매 대신 개발자 콘퍼런스 등을 통해 G5의 혁신성 부각에 공을 들이겠다는 것이다. G5의 경우 실제로 만져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판단도 한몫을 했다.

시장에서는 G5 출시를 이달말이나 4월초로 예상하고 있다. LG전자는 17일 오후 서울 삼삼동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발자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행사는 최근 참가 희망자들이 몰리면서 참석자 집수를 조기 마감했다.

개발자 콘퍼런스는 MC사업본부장 조준호 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CTO 안승권 사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상품기획PD 우람찬 상무는 LG 프렌즈 개발 환경에 대해 소개한다.

LG전자는 이날 G5 프렌즈(G5와 연결해 쓸 수 있는 부속기기)의 개발도구를 공개한다. G5가 디바이스끼리 결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모듈 방식 디자인을 채택한 스마트폰인 만큼 주변기기 연결방식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플랫폼도 소개한다.

또 G5와 프렌즈를 직접 체험한다. 프렌즈의 파트너 업체들의 발표를 듣고 의견을 교류할 수도 있다.

G5는 LG전자의 혁신과 차별화의 집약체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탈착식 배터리다. 그간 디자인 면에서 문제점으로 꼽혔던 배터리를 독특한 슬롯형식으로 해결했다. 모듈형식 배터리는 G5 단말 왼쪽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하단부를 살짝 당기면 배터리가 디자인 하단부와 함께 밀로 빠져나온다.

/인진수 기자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으로 희생가능 기업 살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보다 효율적인 절차로 다듬어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축법)을 활용해 희생가능한 기업은 지속될 수 있게 탈바꿈시키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은 마치 환부를 치유해 새살을 돋게 하듯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을 흐르게 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보다 효율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제5차 기축법이 입법돼 오는 18일 공포·발효된다고 “새로운 기축법은 참여범위를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넓힌 말 그대로 새로운 법”이라고 설명했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

임 위원장은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은 구조조정의 시초이자 전제”라며 “스스로 살아나려는 노력이 없는 기업은 어떠한 지원이 있어도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고 경영인의 철저한 경영정상화 의지가 선행되지 않는 구조조정은 단지 좀비기업의 연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결코 늦추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며 “금융회사의 경쟁력은 건전성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부실을 방지하는 심사능력과 사후적으로 잡혀 있는 부실요인을 찾아내는 대응능력을 모두 작동시켜 금융권의 소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본질은 살릴 수 있는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을 가려내는 ‘육식가리기’인 만큼 공격적인 목표는 부실기업의 경쟁력을 복구해 회생시키는 것”이라며 “금융업계도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과 수단을 끊임없이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이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